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4호 【루게 제25417호】 주제 105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룡악산샘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룡악산샘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내각총리 박봉주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안성수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 동지, 림준길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수길 동지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답고 물이 좋아 장수자들이 많이 나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룡악산지구에 자리잡고있는 룡악산샘물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맛 좋고 질 좋은 물을 보내주시려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2007년에 조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군혁명명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룡악산샘물공장의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자육이 어려웠는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선했는데 대한 전무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송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불타는 일념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와 공장, 속도전 청년돌격대의 일꾼들, 종업원들, 돌격대원들은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여러 대상들에 대한 신속 및 증설, 개건공사를 끝내였으며 지난 시기에 비해 샘물생산능력을 2배로 높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룡악산샘물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전변시켰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인민들에게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질 좋은 샘물을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해주고있다고 하시면서



표준화,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에 수질이 좋은 천연샘물이 대단히 많다고 하시면서 각도, 시, 군들에서도 샘물생산공장을 일떠세워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한쪽의 그림같은 룡악산샘물공장의 견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번뜻하게 포장된 구내도로와 갖가지 나무들과 꽃관목들로 둘러싸인 공장이 참으로 멋있다고, 생산환경이 최고이라고 하시면서 아담하고 산뜻한 생산건물과 문화후생시설들, 생산공정들만 보고서도 위생안전성이 확고히 보장된 공장이라는것이 알린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룡악산샘물공장이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수도시민들에게 샘물을 더 풍족하게 공급해줄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제부가 철두철미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보신 다음 새로 꾸린 혁명사적고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룡악산샘물공장은 룡악산샘물이 대단히 좋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떠세워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샘물공장이 건설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공장이름을 독소 <룡악산샘물공장>이라고 명명해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1년 1월 20일 대한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른 아침 룡악산샘물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서 생산한 샘물의 맛과 지 천히 보여주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장군님의 은정속에 장수샘물로 이름높은 룡악산샘물이 사시장철

수도시민들에게 가닿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에게 맛 좋고 질 좋은 샘물을 보내주시려고 마음쓰시며 공장에 불멸의 영도자육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순간도 잊지 말고 높은 생산성으로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통합조종실, 용기생산공정, 원수샘프징, 샘물생산공정, 제품보관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샘물의 위생안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먹는물을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생산현장들을 외부와 철저히 격리시키고 위생과과실을 새로 꾸렸으며 공기조화 및 정화설비를 설치하여 무균화, 무진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였을뿐아니라 생산지취와 제품관리, 작업현장

의 위생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샘물생산공정의 설비들을 보충하고 능력이 대단히 큰 현대적인 용기생산공정을 새로 꾸림으로써 용기공급으로부터 세척, 주입, 검사, 출하공정까지 자동화, 흐름선화, 무인화된 생산공정들에서 각종 용기에 담긴 샘물이 들지어 쏟아져나오고있는데 불만 하다고 하시였다.

공장에서 여러 단계의 물처리 및 소독공정을 빈틈없이 차려놓으니 룡악산샘물공장의 샘물은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룡악산샘물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문제, 생산된 샘물을 제때에 실어날라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우데 대한 문제, 유리병용기의 색깔과 형태를

돌려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룡악산샘물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맛 좋고 질 좋은 샘물을 더 많이 공급해주려는 달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일거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룡악산샘물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인민들을 위해 열사복무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터에 몸소 찾아 오시여 대대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정은 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룡악산샘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나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나의 생일 79돐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끊임없이 계속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승고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위 라 찐

2016년 8월 22일

비엔리안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며 세형의 정치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을 주도하신 소식을 20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계속 보도하였다.

주마의 브렌서 라퍼 나용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기간에 개발하게 될 로켓 대출력발동기시험을 주도하시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시험결과에 따라만 만족을 표시하시고 국가우주개발국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우주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힘과 기술로 격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 세형의 정치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을 주도하시면서 우주과학기술과 우주산업이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을 가까운 몇해안에 정치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만아신문 《더 글로브 뉴 라이트 오브 만아》는 김정은영도자께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이번 시험결과에 토대하여 위성발사준비를 다그쳐 끝낼것을 지시하시었다. 이것은 북조선이 곧 또 다른 정거로켓을 발사할수도 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고 평하였다.

파오스통신, 중국의 홍콩 《문화보》와 봉황위성TV방송, 우루파이신문 《라 우벤두드》, 베루신문 《엔 코에르세오》, 에리트레아의 신문 《에리트레아》, 웨브사이트 《아로한 온라인》, 기

내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나이지리아의 AIT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첼레지부, 조선과의 친선협회 할스까지부 인터넷포럼 게시판, 도이칠란드민제연단 인터넷포럼 게시판 《현지지도소식들》도 이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22일과 23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보지아의 파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영도자께서 핵탄두발사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체 성원들은 목동같은 《만세!》

의 환호성으로 자기 명도자분 환영하였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당당한 역동유망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공고히 하는데서 보다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이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발신문 《아르칸》과 네발기자협회, 주제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내관기자협회 인터넷포럼까지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조선소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조선과의 친선협회 할스까지부 인터넷포럼 게시판은 고산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신문, 인터넷포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편지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를 전달하는 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를 전달하는 모임이 29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최대북동지와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학 일꾼들,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대북동지가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결된 뒤창한 실제도를 따라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고결한 충정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대학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 위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한없이 승고한 교육봉사, 인제중시의 뜻으로이시여 대학을 위대한 수명님들의 혁명대학으로, 용남산지구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의 터전이 열어오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북동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정력적인 명도에 의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이 민족간부육성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 고 대학을 위대한 혁명의 세시대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명님들의 대학으로 빛내이며 세계일류대학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서한은 위대한 수명님들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김일성동지의 대학, 김정일동지의 대학으로 향상강화되어온 김일성종합대학의 70년 역사에 대한 빛나는 총화이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대학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높은 실력을 지닌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고 첨단과학기술연구사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기 위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이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김일성종합대학의 강화발전이 쌓아 올린 위대한 수명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기 위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이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김일성종합대학의 강화발전이 쌓아 올린 위대한 수명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기 위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이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김일성종합대학의 강화발전이 쌓아 올린 위대한 수명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조선의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자

북 부 의 해 복 구 건 투 장 에 서

최전방에 나래치는 단숨에의 기상

무산군의 피해지역 살림집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

조국이여 우리를 믿으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북부피해복구건설에서의 최야강병들을 다그쳐 무산군 피해복구건설에서 최전방에 나래치는 단숨에의 기상을 창조하고있다.

단 3일동안에 읍지구의 10여동의 다층살림집기초공사공사를 끝마치고,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이 희생적 헌신과 애국적 열정을 발휘하여, 무산군 피해지역 살림집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무산군 피해지역 살림집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무산군 피해지역 살림집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무산군 피해지역 살림집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무산군 피해지역 살림집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무산군 피해지역 살림집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최고사령관부대를 찾아가던 전외의 인민군용사들의 모습이 승업히 새겨졌다.

누군가의 선상에 따라 혁명적 《김정정은장군군가》를 우렁차게 부르며 전대오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행군속도를 부단히 높여 진주정에 제시간에 도착하고있었다.

전투현장을 차지한 즉시 부대 지휘관들은 속조공사에 앞서 살림집건설의 지체정리를 다그치는 한편 설계제와 등 준비작업을 힘써적으로 벌여나갔다. 부대정치일군들이 벌이는 최전선정치사업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건설장면에서는 대령속보관들과 구호, 포어들이 기동성있게 전개되어 군인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새차게 북돋아 주었다.

승려는 이미 전투전에 바쳐졌다. 22일 기초공사에 진입한 부대장병들의 기세는 총성하였다.

중기제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4층의 살림집기초공사에 일제히 발라붙은 부대군인들은 공평이와 삼을 현주제들의 총대마냥 역세게 뿔어주고 흡사라도 놀음냄을 하지 않았다.

부대법사회주의 경정열들이 새차게 띠어지는 속에 온 건설

장은 분노가마냥 끓어올랐다. 전투현장을 진감하는 방송현의 힘찬 목소리가 울리는 속에 한두시간만에 여기저기서 산산들이 생겨나고 살림집기초들이 가로세로 똑똑 자리를 잡아나갔다.

불과 13시간만에 순수 인력으로 수천㎡의 기초공사공사와 제를 겸수한 군인들은 지체없이 발동기초공로프르치기에 달라붙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에서는 순간의 주저와 담보도 있을수 없다. 이런 결사관철의 신념은 그야말로 이 부대만이 아닌 읍지구의 살림집건설에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각 부대 장병들이 순간순간을 기적창조로 빛내이는 원천으로 되고있었다.

조선인민군 김정훈소속부대, 안경남소속부대를 비롯하여 여러 부대의 장병들은 부대의 특성과 건설기재의 보장조건에 맞게 살림집건설의 주력방향을 옮겨 정하고 현주제적인 공적건설을 세계에 뽐내고있다. 만 며칠만에 성취수기수의 여기저기에서 수만명이 달하는 불로코들이 생성되고 기동적으로 전개한 제재정열에서 전 각개와 판자들로 뽐인 화물들이 삼머치처럼 쌓이고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직관선동

조선인민군 장승원소속 부대의 전투장에서는 길이 100m가 되는 대형속보관이 세워져있다. 《조선정사에 길이 빛날 새 기적,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라》...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에 나선 돌격병사의 비상한 각오가 맥박치는 급발들은 불수록 정신이 번쩍 든다.

김은덕동무를 비롯한 정치일군들은 관하 부대, 구부대들에서 직관선동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이동식속보관을 널리 활용하여 직관선동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도록 하고있다. 관하 부대, 구부대들에서는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위훈과 남을 따라 쫓아나가는 아름다운 소행들을 제때에 속보관에 소개선전하여 병사들의 전투적기상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최병사의 피해복구현장에서 참가한 각급 부대들에 대한 관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대에서는 직관선동들을 더욱 품이 크게 밀려나가고있다.

방송선동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군인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고있다. 부대정치부에서는 관하 부대, 구부대들에서 중추가, 확성기를 비롯한 20여개의 이동식방송기재들을 전투장들에 기동적으로 전개하고 방송선동행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다. 방송선동행동을 통해 방송선동은 방송선전차들에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모토를 비롯한 중요소식들을 신속히 인민군원들이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최전방에 서있는 군인들에게 힘있게 향유하고있다. 방송선동행동은 송고하는 최요를 따라배회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돌격부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나가고 있다.

김은덕동무를 비롯한 부대의 정치일군들은 군악대원들과 예술선대원들이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최전방에 서있는 군인들에게 힘있게 향유하고있다. 방송선동행동은 송고하는 최요를 따라배회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돌격부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나가고 있다.

심장을 격동시키는 군악

조선인민군 김동훈소속 부대 전투장에서는 인민군원들을 당의 인민사수권, 인민복무전에 떨쳐나선 인민군원들의 피서지인 10월말까지 최한 살림집기초가 이어안겨주기 위해 살림집건설장다에서 날마다 자방한 기적과 위훈을 수놓아가고있다.

전투현장에서의 의료봉사 활발

각 지 의 료 일 군 들

의료봉사사업은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에 의한 당과 국가의 의료사업의 중요성을 높여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부대에 들어오던 대재앙으로 함북도 북부지역에서 수많은 살림집, 공공건물들과 함께 수십 개의 보건기관들이 파괴되었다. 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에서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되었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를 사령관단의 지령한 전방으로 선포하고 전방, 전진, 전진이 용력을 집중함에 대한 당의 중대적지침과 지시는 심장이다. 새겨진 보건기관의 일군들이 의료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더욱 세고있었다.

상에서는 당의 전투적인 호소

의 정신으로 해당 지역에서 위생 방역사업과 입만 질병치료, 구급수술을 신속히 진행해나가고있다.

도, 시, 군보건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일군들도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의 복부자로서의 사명을 다 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파견된 의료일군들은 현지에서 도착하는 즉시 전지를 차지하고 조국의 북방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의 복부자로서의 사명을 다 해나가고있다.

국가의 인적, 물질, 기술적 잠재력을 북부피해복구건설에 동원한, 용집중환에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사수권, 인민복무전의 건설에서 서있는 보건일군들의 헌신적 열정은 북방에서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할것이다.

결사의 각오로 모두가 떨쳐나섰다

경 원 군 에 서

조국방면의 경원군이 부글 부글 끓고있다.

군인의 모두가 산악같이 펼쳐 일어나 칠아전투를 벌리는 후적지구 살림집건설장은 말 그대로 결전장을 방불케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기적을 낚는 어머니는 대중의 정신적이며 강철국가 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열쇠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것입니다.》

경원군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벽처럼 받아안은 감동은 군안에 벽돌치는 총공격적인 승전이다.

어느 풍물, 어느 리를 돌아보아도 오늘날의 시편을 이겨내고 더 좋은 매일을 앞당겨오려는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뛰고 또 뛰는 사람들의 신심에 넘친 모습을 볼수 있다.

군에서 10여리 떨어진 후적지구 살림집건설전투장에 서면 군안의 인민들이 어떤 각속하기 위해 화선정치사업과

경원군에 서

메기있는 전투장으로 대중을 격고 위훈으로 힘있게 불려온다.

군내인민들의 열의 또한 총선하다.

이들모두를 만리마속조상조대로 떠미는 거대한 추동력은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돌보시는 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피해지역 인민들을 걱정하시며 끊임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의 같은 그리움을 전대대의 힘과 용기로 전환시켜 매일같이 놀라운 기적을 떨쳐가고있는 군의 인민들이다.

짧은 기간에 지대정리와 도량 처리를 끝낸 이어 살림집기초공사를 진행할 때 이곳 인민들이 제일 애덕이기는 부족되는 열의였다.

두만강기슭으로 밀려난 모래와 감람이 쌓여 생겨난 이곳은 아무리 땅을 파고 또 파도 들어 없는 고장이라고 한다.

요구되는 막대한 수를 위해



함북도 북부지역에서 진행되는 살림집건설현장의 모습.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1.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군인들. 2.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군인들. 3.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군인들. 4.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군인들. 5.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군인들. 6.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군인들.

